


### 공동체 소식



#### 사순 제4주일

하느님,  
말씀이신 성자를 통하여 오묘하게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파스카 축제를  
열렬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 ■ 오늘은 '사순 제4주일' 입니다.

- 안내 : 사순시기 동안 Rice Bowl 기도(미국 주교회의, 까리따스 주관)를 실천합니다.
- 방법 : 사순시기 동안 절제나 극기의 수행을 한 가지 정하고 매일 실천합니다. 그런 다음 매일 묵주기도 1단(해당되는 날의 기도)을 바치고, Rice Bowl 저금통에 1달러를 저금합니다.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개별적으로 실천합니다.
- 봉헌 : 주님부활 대축일 본날 교중미사 중.

#### ■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기도' 안내

- 매 사순주일 교중미사 40분 전에 '십자가의 길 기도'를 공동으로 시작합니다.

#### ■ 부활절 맞이 합동 판공 고해성사

- 1,2구역 일정 : 4/7(금) 오전10:00-12:00, 오후8:00-10:00.
- 3,4구역 일정 : 4/8(토) 오전10:00-12:00, 오후8:00-10:00.
- 장소 : 4/7(금)-8(토) 모두 본당 나자렛 교육관.

#### ■ 4월 신심미사 안내

- 성모신심 : 4/1(토) 없음.
- 예수성심 : 4/7(금) 오전10:00, 9:30부터 십자가의 길 기도.

#### ■ 맨해튼 공동체 미사

- 일시 : 4/1(토) 오전11:30

#### ■ 반모임 안내

- 내용: 반모임은 반장님 주관으로 날자와 장소와 운영 방법을 결정하고 시행바랍니다.

#### ■ 미 중북부, 2017년 ME주말 안내

- 일시 : 5/27(토) 오후6:00 - 29(월) 오후 5시
- 장소 : Wyndham Garden Hotel Schaumburg
- 대상 : 미 중북부에 거주 중인 모든 부부(종교와 상관 없음)
- 참가비 : \$400/부부(본인부담 \$300, 지원\$100)
- 접수마감 : 5/7/2017(주일), 신청 : 847-567-1105.

#### ■ 성가대 반주자로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 ■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123	340	174	177

#### ■ 주일미사 복사

	시중 복사	향 복사
금 주	정예진 한나 문예나 요안나	고평원 프란치스코
차 주	차민서 임마누엘 김정원 안젤라	문호진 안토니오

####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명은 안젤라	김태중 예레미야	김시연 엘리사벳
차 주	정수한 베드로	강영진 라파엘	한춘희 라파엘라

#### ■ 애찬 봉사자

금 주	조경희, 김계숙, 유수경
차 주	박정자, 한순례, 김경돌, 박옥희

#### ■ 헌금 봉사자

금 주	백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차 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 ■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3/19일	68명	335달러	1,760달러
이경남, 홍순익, 현교정, 차호섭, 정석원, 김태선, 김진미, 김동술, 박재천, 이영민 (총 10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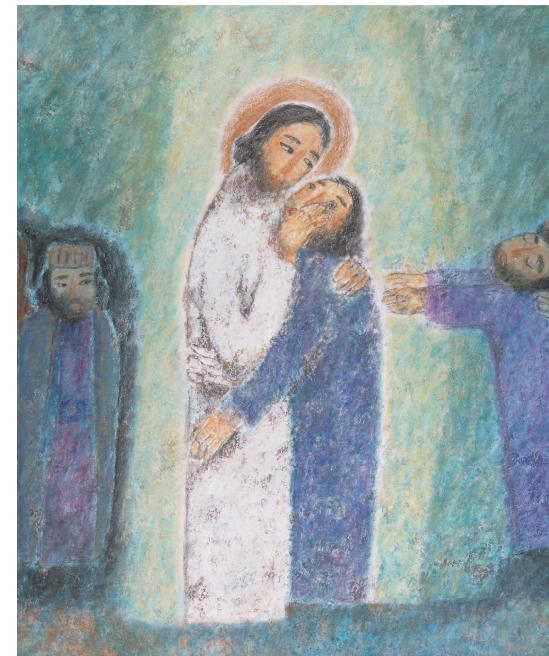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hin@daum.net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사순 제4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데를 보시는 빛의 하느님이신 아버지께서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 눈을 열어 주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뵈게 하셨으니, 세상의 빛이신 주님만을 믿고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 그림 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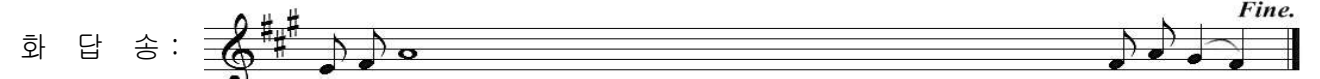
####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 9,4-5)

어둠은 죄와 죽음이며, 빛은 아름다움이고 생명인 하느님 자신입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빛과 어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빛 가운데서 있을 수 있도록 빛이신 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맡깁시다.

-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로말수도회

제 1 독 서 : 사무엘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16,1-7.10-13  
<다윗이 이스라엘 임금으로 기름부음을 받다.>



-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시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5,8-14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 복음환호송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1-41 <또는 9,1.6-9.13-17.34-38>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쉐 마

### 세상 일깨우는 그리스도의 빛



이스라엘의 첫 임금이었던 사울은 하느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판단하여 움직이다가 하느님 눈 밖에 납니다.(1사무 13,13 참조) 그래서 오늘 1독서에 나오듯이 하느님께서 사무엘에게 기쁨을 가지고 이사이의 아들들 가운데 당신이 새롭게 뽑으신 사람 하나를 찾아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느님께서 당신이 뽑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이의 아들들을 찾아간 사무엘은 엘리압이 하느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겠거니 생각합니다.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만큼 더 컸던 사울처럼 엘리압도 등직하게 큰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1사무 11,23; 16,6) 하지만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인물은 이사이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작은 막내아들 다윗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느님의 눈은 사람들의 눈과 다르다는 것, 하느님은 겉모습보다 참된 마음을 보는 분이심이 드러납니다.(1사무 16,11) 하느님께서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해 보이는 인물이 아니라, 작지만 당신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겸손하고 가난한 이들을 통해 당신 일을 하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의 눈이 사람들의 눈과 다르다는 것은 오늘 복음에서도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고 그가 눈이 먼 이유가 자신의 탓인지, 부모의 탓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가 눈이 먼 이유는 하느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답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많은 것을 안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이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죄인 취급을 당하던 가련하고 가난한 소경을 통해 당신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하느님만의 독특한 작업 방식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소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를 없애려 오신 메시아이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소경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눈을 뜨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게 되어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경은 모든 죄를 용서받

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소경보다 낫다고, 소경보다 잘 본다고 여기던 바리새이들은 소경도 이해하게 된 진리를 보고서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도, 그분의 기적을 체험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소경도 모조리 죄인이라고 비난하며 공격합니다. 이런 바리새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요한 9,39)

오늘 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이처럼 스스로 무엇인가를 잘 본다고 말하면서도 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들을 두고 “잠자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눈을 감고 있기에 죽은 이들과 같고,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이런 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우리는 종종 예수님 곁에 있던 바리새이들처럼 무언가를 좀 본다고, 무엇을 좀 안다고 자만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보다 부족해 보이는 이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들보다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곤 합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소경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눈을 열어주시라고 청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모든 것을 하느님의 눈으로 깨닫게 해 주시라고 주님께 간구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 주시고 당신 빛으로 우리 앞을 비추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 올바른 눈으로 하느님과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의 소경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도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리산책

### 미사 때 고백기도를 바치면서 가슴을 '세번' 치는 의미는?

“하느님, 당신 자애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 51, 3)

시편 51편은 구약의 위대한 성왕(聖王)이라 불리는 다윗이 큰 죄를 짓고 고백하는 참회의 내용을 시로 담고 있습니다. 미사의 시작 예식에서도 사제와 신자들은 공동으로 죄를 참회하는 고백기도를 바칩니다. 사제가 먼저 “전능하신 하느님과”라고 운을 띄우면 교우들이 뒤따라서 같이 함송하는 형식입니다. 이때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라고 고백하며 가슴을 세 번 칩니다. 가슴을 ‘세 번’ 치는 뜻은 우리가 세 가지로 즉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 자녀로서 의무를 저버린 것을 후회하고 아파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죄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부당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죄스러움을 진정으로 시인하는 것은 용서와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가슴을 치는 행위는 “주님, 가련한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그리스도인의 겸허한 기도의 기본자세를 나타냅니다.

소죄(小罪)의 경우 이 참회예식을 통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독서와 복음을 들으면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살겠다고 다짐하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대죄(大罪 : 십계명을 어긴 죄)의 경우에는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백기도는 내용상 두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즉 하느님과 모든 성인과 천사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부분

과 성인들과 천사들에게 전구를 청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고해성사를 받기에 앞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하며 고백기도를 바칩니다.

그리스도교에서 ‘3’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 교리에서 보듯이 완전함,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미사 때 고백기도를 드리면서 가슴을 세 번 치는 뜻은 완전한 뉘우침, 완전한 통회의 의미를 표현합니다. 이때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통회하면 소소한 잘못들은 주님의 크신 자비로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됩니다.”(사도 13,38)

- 김지영 사무엘 신부



복음묵상

분실

주신 선물을 잘 쓰지 못하면 주신 분이 그것을 다시 가져가실 것 같죠?

아닙니다.

선물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은 당신이 스스로 알아서 그 선물을 버릴 거예요.

그렇게 없어졌다고 또 그분을 탓하겠죠.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요한 9,41)

- 임의준 신부